

방만한 전주시 세입관리 ‘도마 위’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받는다

장병익 전주시의원, “전북 최하위 금고 이자율”… 자금운용·관리 체계 재검토·개선 방안 마련 촉구

전주시가 2025년도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관리의 방향을 지적받았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동, 중화산 1·2등)은 지난 9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전주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15억원 감소했다고 밝히며, 세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병익 의원은 2025년도 전주시 금융



장병익 의원

채 발행으로 발생한 채무이자율이 4.32%에 달하는 반면, 금고 이율은 고작 1.97%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주시의 공공자금 관리 전략 부재와 금리 협상력 부족으로 이자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주시 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의 원인을 “예치 가능한 자금 축소”로 설명했으나, 장병익 의원은 이를 일축하며 “모든 지자체가 재정 위기 속에서도 효율적 자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병익 의원은 특히 김제시, 파주시,

장흥군 등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병익 의원은 “전주시는 세입구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자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 세금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주시가 자금운용 및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 회계과는 전주시 금고 이율이 1.97%로 전북특자도 중 최하위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오류가 있는 나라살림 연구소와 한병동 의원(익산 을)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며 “현재 시금고 이율은 11월 기준 단기 1~3개월인 경우 2.45%, 6~12개월 미만인 경우 2.65% 등으로 각 유치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전주시 금융채 발행에 따른 채무이자율은 현 한국은행 금리는 3.05%이며, 전북은행에서 4%대에 일부, 정부가 자금의 경우는 2%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에너지 절약 시민 1만5702명에 지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동참한 전주시민 1만57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기·수도·가스·자동차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가정과 상가, 아파트단지, 자동차 등 1만 5702명에게 총 3억2000여 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할 경우 가장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 연 최대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참여 시점 기준 주행거리 대비 참여 종료 시점의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할 경우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참여자들은 생활 속 에

너지 절약을 통해 총 589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20년생 소나무 132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이와 관련 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연중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매년 2~3월경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혹은 수용가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을 통해 가입하거나,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후 주소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농촌동 상습 폐기물 무단 투기지역 환경 정비 추진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방치 폐기물 수거로 주민 불편 해소 나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가 폐기물 상습 무단 투기지역인 일부 농촌동에 대한 환경 정비에 나섰다. 덕진구는 최근 일부 농촌동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지속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야기됨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농촌동 상습 폐기물 무단 투기지역 3곳에 대한 긴급 수거 및 폐기물 불법 투기 발본색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날 28일 덕진구 신성길 21(조촌동) 앞 도로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 5톤 집게차량 1대와 11톤 암롤박스차량 1대, 3.5톤 대형 폐기물 수거차량 2대를 동원해 약 26톤의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했다. 해당 지역은 전주 도심과 주요 외곽도로가 연결되는 곳으로, 교통량이 많아 폐기물 무단투기가 만연해 폐기물

처리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보안등 조도가 약한 틈을 타고 주변 공장과 지역 주민, 도로 이용자들이 불법 건축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으며, 이에 구는 올해 총 18건의 무단투기를 적발해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또 전주시 농민회와 해당동 자율방범대, 통장 등 지역 주민들과 청소 취약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장소 취약시간대 상시 순찰과 신고체계 구축 △농수로와 도로변 갭길에 대한 수시 청결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해당 동주민센터와 함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 수시 잠복근무 강화 △블랙박스 부착 감시 차량 야간 및 주말 상시 배치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대형 홍보 현수막



전주시 덕진구가 폐기물 상습 무단 투기지역인 일부 농촌동에 대한 환경 정비에 나섰다.

설치 △도심 내 불필요한 CCTV 이전 재배치 △보안등 추가설치 등을 통해 무단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영농 및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 등 무단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 이상 농촌동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덕진구는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감시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무단투기 방지 및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 사랑의 저금통 기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동장 서세현)는 10일,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에코누리(원장 안강순), 우아한시티(원장 김선숙), 태평아이숲(원장 정미라) 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써달라며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센터에 전달된 성금은 세 어린이집 원아, 교사 등 80여 명이 동참하였고 사랑의 저금통에는 총 150만 원의 성금이 모였으며,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복한 동네만들기 사업’으로 올봄에 배포하였던 사랑의 저금통에 아이들이 9개월 동안 꼬박꼬박 용돈을 아끼며 모아온 것이다. 에코누리어린이집 안강순 원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려



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실천하는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동참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부된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과정을 거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서전주새마을금고, 사랑의 김장김치 50박스 기부

서전주새마을금고(이사장 박삼순)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장김치(5kg) 50박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일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동장 김은성)에 기탁하였다. 박삼순 이사장은 “올해는 경기침체와 불가상금 등으로 어느때보다 소외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며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성 서신동장은 “매년 서전주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우리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



다”며 “서전주새마을금고 박삼순 이사장님과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김장김치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017년부터 8년간 매년 사랑의 좀どり 기부금 5백만원 총 4천만원을 동네복지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신천지지원봉사단 전주지부(이하 전주지부)는 지난 4일부터 3일간 덕진구 팔복동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복지 센터 3곳에 김장김치 60박스, 지역아동센터 10박스를 인근 지역 주민에게 30박스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김장 나눔을 위해 전주지부가 직접 재배한 배추 400포기를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로 31회를 맞이한 ‘김장 나눔 행사’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